

1 동정

- ▶ 장윤식 중부출판인쇄사 대표는 최근 열린 충북인쇄정보조합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 ▶ 교수권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 ▶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오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9년 서울국제도서전' 개최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 ▶ 안성철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삼동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 함주석 씨가 최근 대구경북인쇄정보조합 상무이사에 취임했다.
- ▶ 전웅진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잡지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최봉수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는 지난 3월 6일 중국출판집단공사 산하기관과 프로젝트 합작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중국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 화촉

- ▶ 김미숙 워너스기획 대표의 장님이 오는 4월 4일 12시 30분 서울 간암구 역삼동 한신인테밸리 4층에서 화촉을 밝힌다.
- ▶ 구용희 올림블산 대표의 장남 자병 군이 지난 3월 14일 M 펠리시티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유영호 승원문화사 사장의 차녀 미란 양이 지난 3월 15일 부천 잼존프라자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조순수 평강기획인쇄 사장의 장녀 허정 양이 지난 2월 21일 월드컵컨벤션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지성환 동양잉크 전무이사의 차남 우준 군이 지난 3월 28일 지구촌교회 분당성전에서 화촉을 밝혔다.

3 부음

- ▶ 지광환 (주)성지정보기술 사장의 모친이 지난 2월 28일 별세했다.
- ▶ 한철희 한국출판인회의 회장(도서출판 돌베개 대표)의 모친이 지난 3월 15일 별세했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본지, 홍보미디어위원회 하나로애드컴서 열려



프린팅코리아 홍보미디어위원회(위원장 김남수·청아문화사 대표) 회의가 지난 3월 2일 오후 5시 동 위원회 위원인 손정희 사장이 운영하는 하나로애드컴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호 발행분에 대한 평가와 4월호 취재·편집방향, 표지제작 방식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 앞서 김남수 위원장은 “표지를 디자인하고, 우리를 초대해 준 하나로애드컴 손정희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프린팅코리아가 인쇄계의 정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본지 표지를 디자인하는 하나로애드컴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표지디자인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본지 홍보미디어위원회는 김남수 위원장을 비롯, 원종성 (주)상현원색 대표, 이민성 (주)성우애드컴 대표, 손정희 하나로애드컴 대표, 황정혜 청우 대표, 유창준 프린팅코리아 편집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 추천접수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오는 4월 10일까지 제4회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 추천접수를 받는다. 접수부문은 기술, 산업, 경영, 환경, 교육, 인력 등 6개 분야 10개 부문에 걸쳐 시상되며, 이중 인쇄산업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것으로 인정된 4개 부문의 선정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을 시상한다. 또한 협회 회원사 및 회원사 직원을 대상으로 협회장표창도 함께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오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시상식은 오는 6월중 소피텔엠버서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서울인쇄센터, 해외수출전문 인력양성교육 실시

서울인쇄센터는 동국대 RIS 사업의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출실무능력 제고 및 수출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해외수출전문 인력양성’ 교육을 인쇄정보센터 내 2층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민수 아시아프린팅 이사가 ‘인쇄물 수출 실무’란 내용으로, 김경수 팩컴코리아(주) 대표가 ‘인쇄물 수출 진흥 방안’ 이란 주제로 이루어졌다.

제2기 차세대인쇄기술자 양성교육 수료식

서울인쇄센터와 동국대 RIS사업단(단장 이의수)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제2기 차세대인쇄기술자 양성교육'의 수료생 5명에 대한 수료식이 지난 2월 27일 인쇄정보센터 2층 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수료식에서 이의수 단장은 "제2기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차세대 인쇄기술자 양성교육'은 초·중·고급 3개 과정을 통해 DTP 애플리케이션, PDF 출력, 디지털 워크플로의 구축과 활용, 컬러 스캐닝, 리터치, 컬러 매니지먼트 등 인쇄품질 및 공정관리에 필요한 이론은 물론 실습 위주의 과정으로 6개월 동안 이수하게 되어 있다. 한편 수료생들에게는 동국대 언론대학원장 명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문의 : 02-2278-3081



인학회, "인쇄용지 가격 인하 절실"

종합인쇄사 공장책임자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인학회(회장 정성도)는 지난 2월 26일에 가진 정기 모임에서 인쇄용지 가격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정기 모임은 최신 인쇄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차원의 세미나 및 현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온디맨드 인쇄 전문가의 강의, 앞으로의 시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가진 '현 업계 위기와 제안'에 관한 토론의 시간에서 인학회 회원 모두는 교환율로 인해 인쇄 부자재 가격이 20~30% 이상 인상되었으나 업체간 경쟁 및 일부 덤핑으로 인쇄비는 하락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인쇄업계 스스로가 반성하여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표했다. 특히, 인학회 회원들은 고지 가격 및 오일 가격은 인하되고 있으나 용지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쇄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용지 공급 업체들의 긍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사회 개최

청주시는 지난 3월 9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 정기총회 부의사항 심의, 2008년도 회계결산 및 2009년 사업으로 직지홍보 및 직지 찾기 운동 캠페인, 협회회원 금속할자 체험, 직지 순회 전시 및 홍보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협회 운영 책임자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세계직지문화협회는 직지의 세계화를 위한 민간중심의 후원조직으로 2005년 3월 창립됐으며, 직지를 비롯한 고인쇄문화의 연구·교육 사업,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관련 사업, 직지의 국제교류·전시·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코닥 상암동으로 이전

한국코닥(주)(대표이사 루이스 레베그)은 오는 4월 24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KGIT3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코닥은 이번 이전은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인쇄분야 코닥GCG와 소비자용 필름, 카메라, 산업용 필름, 카메라 부문이 지난해 법인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코닥이전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3 KGIT3센터 5층(상암초교 건너편 KBS미디어센터 옆 신한은행 건물)

4 | 이전

- ▶ (주)전단(대표이사 송영덕)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가 13-208로 이전했다.
- ▶ 동아원색(대표 김두조)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성동구 성수273동 314-6으로 이전했다.
- ▶ 삼정프린트(대표 황명자)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초동 106-27로 이전했다.

5 | 변경

- ▶ (주)스통문화원의 대표이사에 이동창 씨가 최근 취임했다.
- ▶ 원일종합인쇄(대표 김영우)는 최근 상호를 원일프린팅으로 변경했다.
- ▶ 빌포스트(주)의 대표이사에 최근 이해승 씨가 취임했다.
- ▶ 케미칼기획인쇄(대표 유수형)는 최근 상호를 세중애드컴으로 변경했다.

직지심체요절 기념우표 발행

'직지심체요절' 기념우표가 지난 3월 6일 발행됐다. 직지 기념우표는 직지 로고, 글꼴, 영인본, 직지를 만드는 과정, 캐릭터, 직지 복원판, 직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등 직지와 관련된 사진과 자료를 담은 14장을 1개 세트로 모두 3000세트를 제작했다. 1세트 제작비는 7600원이다.

“고려 인쇄메카는 충주” 충북사회사 발간

충북개발연구원은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충북의 사회 경제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450쪽 분량의 ‘충북지역 사회 경제사’를 펴냈다고 최근 밝혔다.

사제간인 김신용 전 청주대 교수와 충북개발연구원 정삼철 박사가 공동으로 엮은 이 책은 과거 충북의 시대별 산업경제구조, 인구 변동, 성씨 변화, 산출물 등을 자세히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고려시대 충주에서 의학전문 신조판 서적을 무려 99판이나 진상한 것 등에 비춰 충주가 고려시대 인쇄의 메카였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들은 충주 등 도내 북부지역의 제지수공업이 발전하고 오늘날의 국가기록보관소와 같은 사고(史庫)가 조선시대 충주에 설치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또 제8대 왕인 현종이 1012년 2월 15일 청주에서 행궁 연등회를 개최한 이후 고려시대 연등회가 매년 1월 15일에서 2월 15일로 변경된 사실과 14세기 때 도읍을 충주로 옮길 것을 주청한 기록 등도 소개했다.

고인쇄박물관 직지인형극공연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홍보하기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형극 ‘직지를 찾아서’를 지난 3월 16일 공연에 이어 4월 20일, 5월 15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무료로 공연한다. 이 인형극은 한 개구쟁이 어린이가 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를 접한 뒤 직지를 찾아 모험을 떠나 사자, 악어, 여우 등을 만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공연관람 문의는 교육극단 ‘직지(043-291-3310)’으로 하면 된다.

토요일은 공방으로 소풍가는 날

청주시한국공예관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충북지역공방으로 체험여행을 떠나는 <나는 공방으로 소풍간다>를 매월 1회 개최하기로 했다. <나는 공방으로 소풍간다>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와 문화적 자긍심을, 작가들에게는 창작활동 및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실시한다. 방문지역은 청원군 문의면 마동창작스튜디오와 별랏 한지마을, 단양방곡도예촌, 진천 공예마을, 영동난계국악기제작촌 등 충북지역의 공방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천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시한국공예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43-268-0255, 0257)로 신청해야 한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epress news



한성문화인쇄사, 고모리 리스론 S40 가동식

서울시 중구 초동에 위치한 한성문화인쇄사(대표 정승목)는 지난 3월 13일 공장증축 및 장비증설 가동식을 개최했다. 한성문화인쇄사의 정승목 대표는 “경기 위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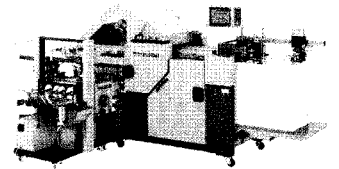
모두가 힘든 때일수록 회사를 재정비하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노후화된 기계를 최신설비로 교체하면서 고품질 인쇄라는 차별성을 갖추어 고객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기계는 전자동 판 교환장치를 갖춘 고모리 대국전 인쇄기 리스론 S40 5색도 인쇄기이며 한성문화인쇄사는 카탈로그 및 책자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시조문화사, 호리존 AFC-546A접지기 도입

시조문화사(대표 김시영)는

지난 3월 다이니폰스크린 이 공급하고 있는 호리존의 AFC-546A를 도입했다.



AFC-546A는 B2사이즈 컴퓨터 제어 자동 크로스

접지기로써 호리존의 최신에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기기이다. 용지 사이즈를 컬러 터치스크린에 입력하고 원하는 접지 패턴을 17여개의 타입에서 선택하면 기기의 모든 곳이 자동으로 세팅된다. 또한 옵션인 슬리터 및 대문접지 발채 등으로 접지물의 재단과 특수 접지인 대문접지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A5 접지 기준으로 최고 시간당 4만3000매를 처리한다.

시조문화사의 김시영 대표는 “증가추세에 있는 외주와 그에 따른 비용, 단납기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접지 공정을 내부화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에 높은 생산성과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호리존의 자동화 접지기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진애드컴, 디지털인쇄기 인디고7000 가동식



성진애드컴(대표 이정희)은 지난 2월 23일 디지털인쇄기 인디고7000 등 장비 가동식을 제2사옥에서 열었다. 인디고프레스 7000 디지털인쇄기와 함께 호리존 2절 접지기 2기, 호리존 스티치라이너 5500 중철 라인과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CTP 2세트, 호리존 4클램프 무선제책기 BQ-470 1기, 코니카미놀타 LD-6500 2 세트 등이 함께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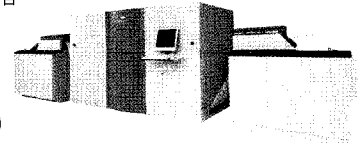
이정희 사장은 “급속도로 변화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크로스미디어로의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품질 디지털 인쇄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오프셋 기반의 인쇄와 디지털 인쇄 영역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생산합리성의 극대화, 전 공정의 생산 효율성 제고로 고객들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문프린텍, 접지기 AFC-744A+FFU-74도입

(주)명문프린텍(대표이사 이경중)은 지난 3월 B1 사이즈 접지기 AFC-744A+FFU-74를 도입했다. AFC-744A는 B1 사이즈 컴퓨터 제어 자동 크로스 접지기로서 넓은 범용성과 그 정확도로 유럽에서 인정받는 고속 접지기다. 용지 사이즈를 컬러 터치스크린에 입력하고 원하는 접지 패턴을 17여개의 타입에서 선택하면 기기의 모든 곳이 자동 세팅되며 옵션인 대문접지 발채를 장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문접지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 A4 접지 기준으로 최고 시간 당 3만6000매를 처리할 수 있다. 명문프린텍의 이경중 대표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에 걸 맞는 고속이며 안정적인 접지기를 찾던 중에 높은 자동화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호리존의 접지기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우니, 트루프레스젯 520 설치

DM토탈 솔루션 공급업체인 (주)조우니(대표이사 이우백)가 지난 2월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주) (대표이사 전익성)의 풀컬러 디지털 인쇄시스템 트루프레스젯 520을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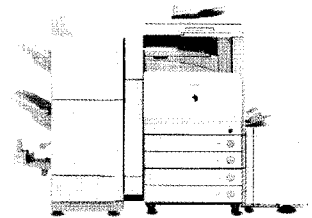


이번에 설치된 트루프레스젯 520은 스크린의 프리프레스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이 융합된 차세대 잉크젯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1:1 가변 데이터 인쇄물의 처리에 생산성, 인쇄품질, 러닝코스트 등 뛰어난 밸런스를 갖춘 제품이다. 한편 트루프레스젯520은 DOD잉크젯 헤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전압에 의해 형태가 변하는 피에조 소자에 의해 잉크 분사량을 매우 정밀하게 컨트롤하며 멀티톤 인쇄를 실현, 부드러운 제조 재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조우니는 지난 40여 년간 전산관련 업무설계, 처리 및 통계, 전산출력, 봉입발송에 이르는 DM토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공급해 온 업체이며 고품질 풀컬러 DM시장 및 POD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량 풀컬러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장비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조우니는 One to One 마케팅 시장을 타겟으로 고속 고품질 인쇄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캐논코리아, 2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천주)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사무기기 부문 2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워브랜드 선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의 소비자 1만1272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내구재, 서비스업 192개 산업군의 모든 브랜드에 대해 인지도와 충성도 등을 조사해 선정됐다. 캐논코리아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구매 의향, 선호도 등 여러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아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된 브랜드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역량인 만큼 전사적으로 브랜드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 태백·정선에 생수 지원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2월 26일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와 정선군을 방문해 17톤 분량의 생수를 전달했다. 한국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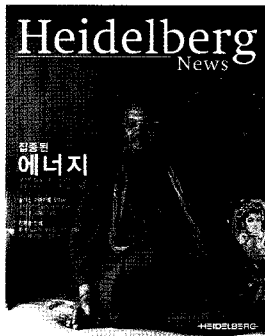


제록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이날 8톤 트럭 2대, 2ℓ 짜리 생수 총 8640병을 싣고 정선군을 찾아 전정환 부군수에게 트럭 1대 분량을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분량의 생수를 태백시에 기증하고 가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생수를 나눠줬다.

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대표는 “식수까지 제한될 정도로 가뭄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태백, 정선 주민들을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마련했으며 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기증한 생수가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뉴스 발행

한국하이델베르크(대표이사 김범식)는 2009년 하이델베르크 소식지, Heidelberg News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뉴스지는 최근 인쇄 시장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프리프레스, 인쇄, 후가공 및 워크플로 등 인쇄 전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호에 게재된 주요 기사 내용으로는 최근 인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조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 인쇄의 최근 기술적 동향과 친환경 인쇄가 어떤 경제적 이점을 가져오는지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다. 또한 최근 하이델베르크가 주목하고 있는 패키징 분야의 자동화를 위한 프리넥 패키징 워크플로에 관한 기사는 포장 인쇄의 자동화와 효율성 증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속화되는 인쇄기의 속도에 맞춰 어떤 후가공 기계의 구성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인쇄 작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 이해와 적용이 쉽다.

스피드마스터 SM 102의 최근 혁신 기술을 소개하면서 SM 102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발전하고 있는지도 알리고 있다.

아그파코리아 창립 18주년 기념식 가제

지난 1991년 벨기에 본사의 100% 투자법인으로 설립된 아그파코리아(주)(대표이사 권순기)는 지난 3월 2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 본사 사무실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권순기 대표를 비롯한 40여 임직원은 사내 대회의실에서 창립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별도 행사를 하지 않고 검소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권순기 대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직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창립기념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직원 개개인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올해 목표한 것을 꼭 이루자”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만로랜드, BPBP 프로그램 인증서 수여

만로랜드(주)(대표 케네스 엠 한센)가 진행하고 있는 인쇄회사 매업 오퍼레이터 지원 BPBP프로그램이 결실을 맺어 대상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만로



랜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만로랜드 매업 인쇄기 보유회사의 오퍼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BPBP(best press with best printer)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만로랜드 인쇄기를 보유한 대부분의 인쇄 업체의 큰 호응으로 각 사 대표의 추천을 받은 100여명의 현장 오퍼레이터의 신청을 받았다. 만로랜드코리아는 본사 교육센터에서 진행된 특강과 각종 인쇄기능사 시험자료를 제공, 우선 1차로 약 15명에게 인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BPBP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다.

만로랜드코리아 박덕호 상무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퍼레이터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며 “여러 가지로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만로랜드코리아는 이번에 1차로 진행되고 있는 BPBP 인증서 수여로 더

많은 오퍼레이터들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BPPP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만로랜드코리아(주) 교육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아그파코리아, 사내 생일자 축하 모임 가져

아그파코리아(주)(대표이사 권순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진작하고 직원간의 유대 강화 및 가족적인 회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회사 내의 그 달의 생일자를 공지하고 조출한 생일자 모임을 마련, 해당 직원을 축하하는 행사를 매달 가지고 있다. 지난 3월 생일 대상자이자 신입직원인 조정선 씨는 "사장님의 메시지가 손수 쓰여 있는 카드와 작은 선물을 받으니 뿌듯하고 많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들으니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다" 는 소감을 밝혔다.

성도GL/솔루윈, 고객 감동 프로젝트 교육 실시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3월 3일과 17일에 '고객 감동 프로젝트-창의 상상력으로 혁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 임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



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회당 약 3시간의 집중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고객 중심의 창의적 발상을 기르기 위한 것을 주 내용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타라그래픽스, 13호 삼성타운점 오픈

타라그래픽스(대표 강경중)는 지난 2월 23일 타라그래픽스의 13호 삼성타운점을 오픈했다.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타운점은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와 미국 IBM본사를 설계한 미국 건축사무소 KPF가 설계한 것으로 연면적 38만 9000여㎡ 규모에 3개 동으로 구성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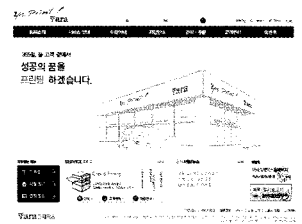


강남 스카이라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적 특징을 감안해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활용하여 컨셉 매장으로 연출되었다.

또한 삼성점은 오픈을 기념해 방문 고객에게 다양한 오픈선물을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있다. 삼성타운점 : 02-521-2522

타라그래픽스, 사이트 리뉴얼 오픈

타라그래픽스(대표 강경중)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새로운 전용웹하드(T하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사이트를 전격 리뉴



얼했다. 이번 리뉴얼 작업에서는 타라그래픽스의 핵심 서비스를 상황별 일러스트로 만화 보듯 재미있게 표현하여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소화해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용웹하드를 구축, 자체적으로 파일 업로드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각 지점별로 고유의 ID, PW를 부여하여 프린팅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T하드에 파일을 올린 후 주문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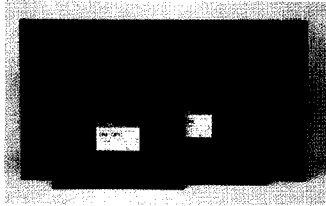
한국HP, 꽃보다 심플블랙 프로모션



한국HP(대표 최준근)는 HP심플블랙(Simple Black, 검정잉크)잉크 카트리지를 G마켓에서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꽃보다 심플블랙"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HP와 G마켓의 특별 기획으로 이뤄지는 '꽃보다 심플블랙' 이벤트는 오는 4월 30일까지 HP 심플블랙 잉크를 구입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벤트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내가 써 본 심플블랙 잉크가 좋은 이유'를 댓글로 남긴 모든 고객에게 심플블랙1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7명을 추첨해 HP 미니노트북 1013TU, 샤프 전자사전 RD-CX 150P, 소니 카메라 DSC T700 등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성도GL/솔루윈, KPCAShow 2009 참가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진행되는 KPCA show 2009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PCAShow 2009는 국내 유일, 최대의 전자회로 및 실장관련 전문 전시회로서 PCB산업과 SMT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선진 기술 소개 및 기술 이전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성도GL과 솔루윈은 이번 전시 행사를 통해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고객들에게 제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회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세미나 행사도 동시에 진행 예정이며, 이번 전시회에 고객들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도GL/솔루윈이 참가하는 부스는 5홀 Booth No. E-201이며 문의는 02-3406-7006로 하면 된다.

한국와콤, 국민대학교 조형대학과 MOU 체결

세계적인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Wacom)의 한국법인 한국와콤(대표 서석건)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학장 노경조)은 지난 2월 27일 디자인 산업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한국와콤은 국민대측에 전문가용 액정 태블릿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디자인 저작도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대학교 조형학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디자이너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으며, 젊고 참신한 교수들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다.

노경조 조형대학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작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조형대학은 한국와콤의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융합하는 디자인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니콘, CMS 인증으로 고객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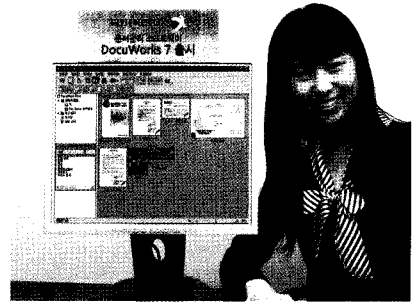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아파구치 노리아키)는 지난 3월 11일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으로부터 CMS(Contact Management System, 컨택센터 운영 시스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CMS는 고객관계관리(CRM)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의 품질 경영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및 운영 성과를 국제표준규격(ISO9001:2000)과 글로벌 기준(CMS:2008)으로 평가, 객관적인 공인 인증 기관이 인증해주는 제도다.



한편, 니콘이미징코리아는 그동안 고객과 기업의 최접점에 위치한 고객센터(CS)를 기업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고객 요구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록스,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도큐웍스 7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3월 16일 업무생산성 향상 및 TCO(총소유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한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인 도큐웍스7(Docu Works 7)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도큐웍스7은 문서의 전달, 보관, 공유 등 효과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다양한 편집 및 문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여러 종류의 문서를 도큐웍스 문서로 통합해 단일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복합기 스캔 받은 문서를 바로 도큐웍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복합기와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문자인식기능이 내장돼 있어 종이문서를 검색 가능한 도큐웍스 전자문서로 변환한 뒤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료 공유를 위한 종이 출력비용과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절약을 통해 업무생산성을 높이고 TCO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황인태 영업본부장은 "기업내 문서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큐웍스7은 효율적인 문서관리와 종이 사용량 절감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으로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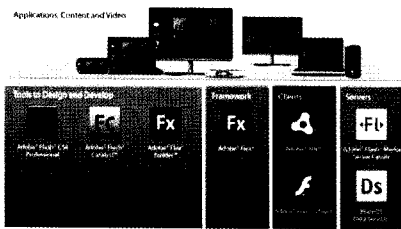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비용절감 솔루션 호평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 www.fujixerox.co.kr)는 자사 솔루션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비용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에 의하면 물류회사인 용마로지스는 문서전자화 솔루션을 도입해 월 평균 6만여 매에 달하는 팩스문서의 출력을 완전히 없앴으며 또한 출력량 통합관리 솔루션을 통해 출력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부서별사용자별, 기간별로 출력량을 미리 설정해 불필요한 출력을 줄여 비용절감 효과를 안겨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평양제약은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사용하는 전체 사무기기의 출력량 관리 솔루션을 통해 중복된 출력업무를 줄였으며 기기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총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월평균 8%의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어도비, '실시간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 공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3월 5일 어도비 플래시 플랫폼(Adobe Flash Platform)의



핵심 기술 가운데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설계된 '실시간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Real-Time Messaging Protocol, 이하 RTMP)' 기술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어도비가 공개하는 RTMP는 풍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술 스펙으로, 앞으로 개발자와 기업은 그동안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통해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해온 AMF, SWF, FLV 및 F4V 포맷의 검증된 RTMP 스펙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도비시스템즈의 CTO인 케빈 린치 수석부사장은 "RTMP 스펙을 통해 구동될 디바이스나 콘텐츠 출처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는 다양한 플래시 콘텐츠 개발을 더욱 앞당겨, 결과적으로 다양한 운영체제(OS)와 디바이스를 통한 웹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및 비디오 경험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다"라고 이번 기술 공개의 의의를 밝혔다.

제지뉴스

Paper news



한국제지 전원중 대표, 납세자의날 대통령 표창

한국제지(대표 전원중) 전원중 대표이사는 지난 3월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된 날로써 성실납세의 실적에 따라 훈장, 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며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이 부여가 되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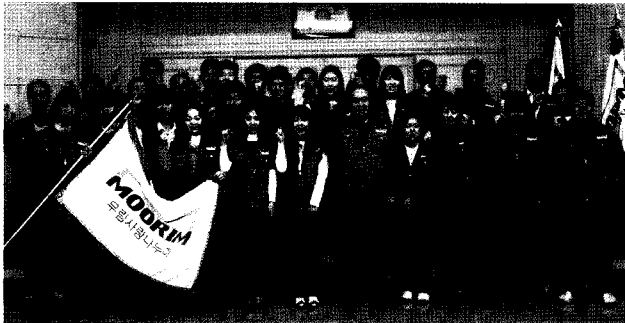
한국제지 황병규 팀장외 3명 우수제지인상 수상

지난 2월 2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24회 우수제지인상 시상식에서 한국제지 생산1팀 황병규 팀장, 생산3팀 김문석 반



장, 동력팀 전기파트 김선규 조장이 우수제지인상을 수상했다. 제58차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정기총회 후에 열린 우수제지인상 시상식에는 회원사 임원들과 수상자 가족 등이 대거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우수제지인상은 제지업계 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으로 올바른 제지인상 확립에 귀감이 되는 제지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황병규 팀장은 생산성 향상 및 시스템 개선에 기여했으며 김문석 반장은 생산 공정안정과 초지2호기와 초지4호기의 시운전에 참여하여 조기산업생산을 가능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선규 조장은 전장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무림, 무림사랑나눔미 확대 실시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 본사와 무림SP 대구공장은 지난 3월 14일 사회봉사단 '무림사랑나눔미' 발족식을 갖고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전사적 봉사활동으로 확대했다. 이날 발족식은 단장인 이규현 부사장의 격려사, 대표단원 선서와 봉사단기 전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봉사단원들의 각오와 의지를 굳건히 하며 '무림사랑나눔미'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아동양육시설인 남산원으로 이동, 외부 환경정리와 실내정리정돈을 했다. 폐목재 재활용 작업과 벽돌 나르기 등 땀 흘리는 시간을 통해 이웃 사랑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한편 무림SP 대구공장도 '무림사랑나눔미' (단장 황기연 공장장)의 별도 발족식을 마친 후, 인근 아동양육시설 천광보육원으로 이동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동해펄프도 오는 4월 11일 '무림사랑나눔미'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3월 지역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 시작한 '무림사랑나눔미'는 올 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삼원특수지, 친환경 그래픽디자인 용지 3종 출시

(주)삼원특수지(대표이사 이상욱)는 새로운 감각의 친환경 그래픽디자인용지 '아이린', '딜렉스', '쉐이드'를 출시했다. 삼원특수지 관계자는 '아이린'은 독특한 표면 엠보와 자연스러운 색채가 조화를 이룬 최고급 그래픽디자인용지로 맑은 듯한 섬세한 밧줄무늬의 아이린 코드와 클래식한 나뭇결무늬의 아이린 코르크로 구성되어 제작물에 입체감을 살려준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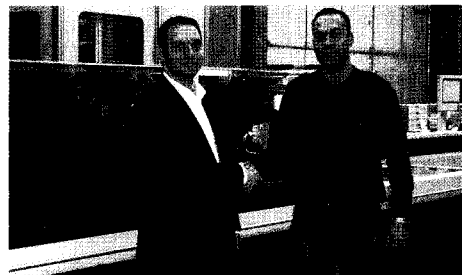
또한 '딜렉스'는 실제 양피지를 만지는듯 한 부드럽고 촉촉한 표면과 네 가지 자연스러운 컬러가 돋보이는 종이로 지면에 손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 보다 깨끗하고 선명한 제작물을 완성하는데 일조한다. '쉐이드'는 펄프를 맷돌 방향으로 돌려 전통 종이 제조방식으로 생산한 종이로 모던한 색상에 독특한 패턴이 어우러져 특별한 제작물을 원하는 디자이너 및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삼원특수지는 전했다.

삼원특수지의 신제품 3종은 모두 세계적인 환경 인증마크인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이며 중성처리(acid free)를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색이 없어 애뉴얼리포트, 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친환경 이미지 홍보 제작물이나 고급 패키지 및 브로슈어, 카탈로그, 작품집 등 다양한 디자인 제작물에 적용할 수 있다.

:: 해외뉴스

World news

헝가리에 1호 유로바인드4000 무선철기 설치



페라 니옴다사 사장 크바사이(오른쪽)와 하이델베르크 헝가리의 야쿠비스(왼쪽)

하이델베르크는 유로바인드4000무선철기가 헝가리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고 밝혔다.

드루파 2008에서 소개되어 대량 생산에 들어간 유로바인드 4000은 무선철기는 시간 당 4천권을 생산하며 현재 28대가 세계적으로 공급되어 있다. 유로바인드4000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생산 공정의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아 최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F product design award 2009'을 수상하기도 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인쇄사 페라 니옴다(Pera Nyomda)사는 지난해 말부터 유로바인드 4000을 이용한 작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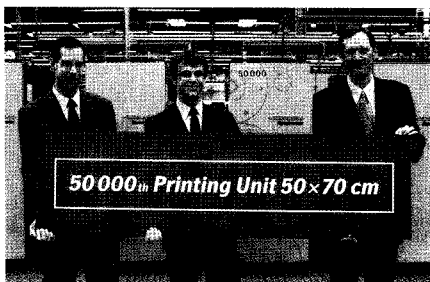
페라 니옴다사의 크바사이 사장은 "유로바인드 4000은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우리는 이제 고품질 인쇄물은 자체적으로 최종 후가공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페라 니옴다사는 도입이후, 첫 두 달 동안 30만권의 브로슈

어를 제작했으며 월간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저널 등을 주로 생산했다. 대부분의 인쇄물은 헝가리 시장에 공급되며 5~10%는 수출하고 있다. 프리프레스 부서에는 수프라세터 105 SCL이 있으며 인쇄실에는 2대의 무알콜 스피드마스터 SM 102-8P와 스피드마스터 CD 74-8P가 설치되어 있다.

하이델베르크 5만번째 T3절 인쇄 유닛 판매

하이델베르크는 T3절 유닛이 장착된 스피드마스터 SM74를 폴란드의 인쇄사 크로마 프레스(Chroma press)



에 추가로 설치, 5만번째 유닛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이델베르크의 기술 및 생산 담당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플렌츠는 “5만번째 T3절 인쇄 유닛 판매는 그 규격 시장에서 성공 스토리의 새 장을 쓰는 것이며 50×70cm 규격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려왔다”며 “모든 모델은 개별 요구 조건과 작업 종류에 맞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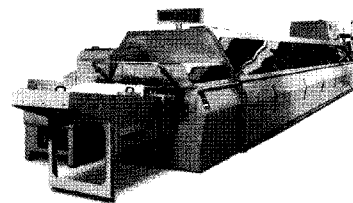
1980년 M-Offset 시리즈로 처음 시장에 등장했으며 스피드마스터 SM 74는 드루파 1995에서 처음 세계에 출시됐다. 동 전시회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스피드마스터 CD 74를 고성능 T3절 규격 인쇄 시장을 위해 출시했으며 이 인쇄기는 다른 실린더 설계를 갖추고 있어 UV, 컷스타나 포일스타와 같은 다양한 특수 효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드루파 2008 이후 제품 구성이 변경, 50×70cm 규격에는 현재 스피드마스터 SM 74와 스피드마스터 XL 75가 제공된다.

시간 당 1만8000매 속도를 갖고 있는 스피드마스터 XL75는 50×70cm 규격 대에서 새 성능 기준을 제시한다. 뛰어난 유연성은 0.03~0.8mm 범위의 두께로 다양한 용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스피드마스터 XL75는 12개 인쇄 유닛 및 코팅 유닛까지 편면 및 양면 모델로 다양하게 공급되어 뛰어난 유연성을 발휘한다. UV 코팅, 이중 코팅 유닛, 포일스타를 통한 콜드 포일 작업과 같은 마감 효과가 가능한 고객 맞춤 인쇄기와 오프셋 유닛 전 플렉소 인쇄 유닛을 갖춘 듀오 인쇄기 등 스피드마스터 XL75는 또한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된다. 이는 상업, 패키징 및 라벨 인쇄인들에게 큰 유용성을 발휘한다.

물러마티니, 무선철기 볼레로 인기

물러마티니는 무선철기 볼레로(Bolero)가 뛰어난 성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볼레로는 책의 펼침성이 뛰어나게 해 주는 장비



로 PUR로 책등 풀칠 작업을 하면서 시간당 1만8000 사이클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책등 풀칠 라인에는 VPN 노즐을 적용했으며 이 노즐 기술은 이미 2년 전 처음으로 물러마티니가 소개한 바 있는 기술로써 폭 넓게 무선 제본에 적용될 수 있는 가치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PUR은 책을 완전히 펼치지지만 다시 넘어오거나 하는 일이 없으며 종이 두껍고 미끄러운 고급 제본에 가장 적합한 무선 제책 기술이다. 높은 자동화 수준으로 PUR 뿐만 아니라 일반 핫 멜트 제본까지 한 라인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의 무선제책기로 제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러마티니, 프론테로 전면 재단기 공급

물러마티니코리아(대표 김두일)는 전면 재단기인 프론테로(Frentero)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러마티니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모라비토 관리이사는 “프론테로 전면 재단기의 작업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물량이 많아서 작업을 외주로 돌려 작업할 때, 결과물인 책을 놓고 비교하면 뚜렷하게 품질의 차이가 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론테로 전면 재단기는 전면부가 접혀있는 책을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편의성과 존재의의가 크다.

안토니오 모라비토 이사는 “우리는 개인 회사처럼 기업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 물러마티니에서 공급한 볼레로로는 18개 스테이션으로 구성된 정합기, 연속 급지기, 엔드슈트 급지기, 게이트 폴드 스테이션, 날권 절단장치, 메리트S 삼면 재단기 그리고 CB-16 스택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볼레로 라인인 지난 1993년 이래로 만족스러운 생산을 수행해온 모듈러 방식의 바인더를 대체, 공급되었으며 신형 무선 제본기의 기술력에 더해 장비의 작업 가능한 규격범위가 크다는 점과 더 복잡한 제품을 생산하는데도 그 작동이 훨씬 쉽다.

후지제록스, CO₂발생량 700만톤 감축키로

후지제록스는 오는 2020년까지 CO₂배출량 30%(2005년 대비), 700만 톤 감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 후지제록스가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후지제록스는 우선 연구, 개발, 조달, 생산, 물류, 고객 사용시의 전력 소비량에서 재활용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감을 통해 2005년 연간 약 170만 톤에 달하는 CO₂배출량을 2020년도까지 약 120만 톤으로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후지제록스는 이의 달성을 위해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소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제품 1대당 소비 전력을 2005년도 대비 80% 절감할 예정이다. 후지제록스는 이미 제품 라이프사이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가운데 50% 이상이 제품 사용시 전력에서 발생하는데 주목해 90년대부터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에너지 절약 대상'에서 10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후지제록스는 지난 1999년 제정된 '환경과 안전 전망'을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를 위한 환경보호에 세계적인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인쇄잉크, 2008년 판매단가 상승

일본에서도 인쇄잉크의 판매 단가가 상승했다. 인쇄잉크공업협회가 경제 산업성·화학공업 통계를 기본으로 정리한 2008년 1톤당 출하액은 67만7611엔으로 전년대비 1% 증가했다. 2년 만에 상승한 것이지만 지난 5년을 봐도 최대의 인상 폭이다.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 개정이 이뤄진 그라비아 잉크,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 잉크를 포함한 '기타 잉크' 등이 올랐다.

특히 그라비아 잉크는 출하량이 전년대비 포함세를 나타내면서 출하 금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판매 단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쇄 잉크 메이커의 수익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부, 책, 함께 읽자 독서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주최하는 "책, 함께 읽자" 캠페인(후원 간행물윤리위원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문인협회·한국연극협회)의 3월 낭독회 개막식이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 서울 대학로 아르코시터 소극장에서 열렸다. 신경림·정현종·신달자·김혜순 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인촌 장관과 배우 권성덕·손숙이 시를 낭송했다.

"문화와 경제는 쌍두마차로 가야 하는데 문화는 뒤처지고 경제는 앞질러가는 바람에 우리가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는 배우 손숙은 이날 "나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삼단 같은 머리를 땀아 내린 사나이/ ... 다홍치마를 두르고 나는 향단이가 된다"로 흘러가는 노천명의 시(남사당)를 읽었다.

신달자 시인은 "제 시집 《열애》에서 관객에게 친숙한 소재의 시 3편을 골랐다"면서 "문학성보다는 관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에 제 해설도 곁들였다"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서전 슬로건 ... 다시, 책으로 시작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2월 20일 2009년 서울국제도서전의 콘셉트를 '책의 확장'이라고 정하고 이어 주제와 슬로건을 각각 '책의 상상력', '다시, 책으로 시작한다'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특징은 크게 국내외 출판 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의 날' 운영을 비롯해 부스비 인하, 입장료 징수, 관람시간 연장, 자격증 수험서 코너 운영, 연예인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회원사의 경우 도서전 부스비 임대료(140만 원에서 120만 원)가 전년에 비해 14%인하되며, 부스비 납부일(4월 30일) 내에 완납한 출판사에 한해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얼리버드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책 신규사업 창업·취업 지원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는 4월부터 전자출판에 관심 있는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파주출판단지 내 '전자출판교육센터'에서 '2009 유비쿼터스 출판 아카데미'를 개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유비쿼터스 출판

아카데미'는 기존의 출판·디지털콘텐츠 분야 재직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청년실업자와 장애인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교육 수료 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내 첨단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토록 해 전자책 1인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 여름방학 기간에는 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후 전자출판 관련 현장에 취업을 연계하는 '전자책 인턴십 제도'도 도입한다. 총 8일간 하루 8시간씩 진행되는 유비쿼터스 출판 아카데미의 수강료는 전액 무료며, 교육 신청은 한국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www.kepa.or.kr)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불법복제 218% 증가

지난 한해동안 오프라인 상에서 적발된 불법 복제물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최근 발표한 '2008년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오프라인상에서 총 38만2068점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의 12만111점에 비해 단속량이 218% 급증한 것이다. 단속 건수 역시 전년의 1394건에 비해 22% 증가한 1705건에 달했다. 분야별 단속량은 영상물이 32만9451점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음악 3만4806점, 출판 1만781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출판문화학회, 19년만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금창연 동원대학 교수가 1년 전부터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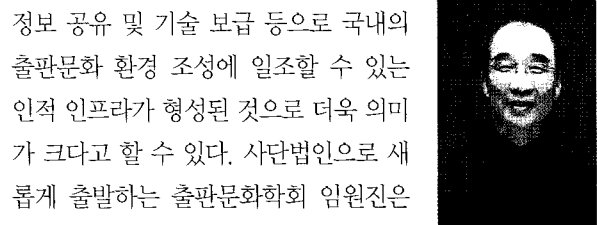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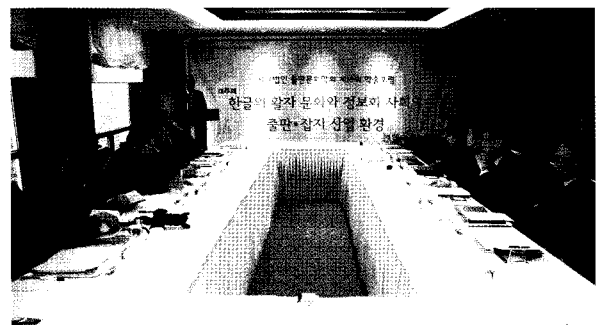
출판문화학회(회장 금창연·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 사진)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출판문화학회는 100여 명의 출판, 편집, 인쇄 관련자들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게 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금창연 교수는 2007년 출판문화학회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회원들에게 그동안 개인적 단체로 운영돼오던 학회를 법인 단체로 허가를 받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출판문화학회는 지난 1990년 8월, 출판, 잡지, 인쇄 미디어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통해 학적 이론의 체계화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산학 협동을 통한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출판문화 창달에 앞장서 오면서 1992년 학술지 <출판잡지연구>를 창간, 지금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통권 16권째를 발행하고 있다.

금창연 회장은 사단법인 허가에 즈음하여 "출판·잡지·인쇄가 세상에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식어 가고 있는 출판, 잡지, 인쇄 관련 분야 종사자의 학문적 열정을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판문화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것은 출판, 인쇄 관련 종사자들의 결집력 강화를 통해 학문 교류와



정보 공유 및 기술 보급 등으로 국내의 출판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형성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출판문화학회 임원진은 회장 금창연(동원대학 교수), 이사 부길만(동원대학 교수), 이창경(신구대학 교수), 오성상(신구대학 교수), 윤광원(미래엔컬처그룹 상무), 감사 송인근(국민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출판문화학회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학술포럼 및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금창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만큼 다양한 사업전개와 출판계의 발전을 위한 일에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